

효성 권익현 상무 “화학 특허왕”

화학·생명분야 175건 등록 ... 삼성SDI 강태경 연구원은 전자 1위

효성 권익현 상무가 화학·생명분야에서 175건의 특허를 등록해 특허왕에 선정됐다.

특허청은 2월8일 대중소기업별, 업종별 특허 다등록 연구자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화학·생명분야에서는 효성 권익현 상무가 175건을 특허 등록해 1위에 올랐고, 기계·금속분야에서는 포스코 박순복 기술연구원(150건)이, 전기·전자분야에서는 삼성SDI 강태경 전임연구원(347건)이 해당분야의 가장 많은 특허 등록연구자로 나타났다.

권익현 상무는 고성능 타이어에 사용되는 레이온(Rayon) 타이어코드(Tire Cord)를 대체하는 라이오셀(Lyocell) 타이어 코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특허를 출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강태경 전임연구원은 PDP(Plasma Display Panel) 및 회로분야에 많은 특허를 등록했다.

중소기업에서는 기계·금속분야에 젠트로 변무원 대표(57건), 화학·생명분야에 바이오스펙트럼 박덕훈 대표(55건), 전기·전자분야에 주원피엔비 최준영 대표(190건)가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했다.

변무원 대표는 건설자재 및 상하수도 수질개선 기술로, 박덕훈 대표는 피부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 소재 기술로 특허를 등록했다.

최준영 대표는 TFT-LCD 패널 제조의 핵심장비인 플라즈마 건식식각장비 국산화를 통해 다수의 특허를 등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9>